

전북대, 한옥건축 전문가 키운다

고창캠퍼스, '대목수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8개월 간 이론·실습 무료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단장 남해경)이 '한옥 대목수 양성과정'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은 국토부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된 전북대가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모든 이론 교육과 실습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참여 교육생에게 소정의 훈련비도 지급된다. 오는 11월 9일 시작돼 8개월 간 진행

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 및 소양교육과 함께 한옥 건축 일반에 대한 이론 교육, 그리고 도면작성도와 캐드설계, 모형제작 등의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지원 자격은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 대상자, 만18세 이상 한옥 대목수 기술교육 희망자 및 일반건설기능인이다. 관련 분야 취업자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소득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

할 수 없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gohanok@jnu.ac.kr)이나 팩스(063-561-5207) 혹은 전북대 고창캠퍼스 공학과 201호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063-561-5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경 단장은 "그간 다양한 한옥 전문 교육을 통해 한옥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인프라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며 "한옥 건축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힘쓰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실습장을 설치해 한옥기능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 국내 유일한 한옥 전공을 개설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옥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교육을 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일본 戰後史 연구 권위자 아와야 교수 개인소장자료 2,000여 권 원광대 기증

일본 전후사(戰後史)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아와야 겐타로 전 릿쿄대 명예교수의 개인 소장 자료 2,000여 권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연 연구단에 기증됐다. 아와야 겐타로(1944~2019) 교수는 1973년 고베대학 교양학부 전임 강사를 시작으로 2010년 릿쿄대 명예교수로 퇴임하기까지 패전·후 미군이 대일점령기에 실시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이하 도쿄재판)의 광범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집대성하고, 도쿄재판 과정과 의의를 밝힌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와야 교수가 미국 공문서관(NARA)에서 직접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간한 총 8권의 '국제 검찰국(IFS) 심문조서'는 전세계적으로 자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남=정왕원 기자



또한, 도쿄재판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일본 전황이 전쟁 책임자임을 분명히 한 아와야 교수는 퇴임강연에서 도쿄재판의 변혁 문제가 일본의 과거 극복을 오려려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와야 교수는 생전에 자신의 자료가 일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널리 공개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아와야 교수의 유지를 존중한 유족을 바탕으로 출간한 총 8권의 '국제 검찰국(IFS) 심문조서'는 전세계적으로 자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남=정왕원 기자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졸업생 취업지원서비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연기되거나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전공과 지원 분야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와 1:1로 매칭돼 개인별 취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특히, 온라인 채용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 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입사 지원서 작성 교육과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대 졸업생은 "코로나19로 채용이 취소되면서 막막하던 차에 졸업생을 위한 취업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중했다"며,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며 불안감도 줄고, 타지에서 화상 플랫폼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개소해 도내 청년을 위한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지역 기업을 위한 인재풀 마련과 다양한 취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 평가를 획득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대학교는 27일 대학본관에서 직원 3명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전주대 한남희 처장·박종찬 부장·이석현 실장

'30년 교육발전 한 길' ... 정년 퇴임

전주대학교는 27일 대학본관에서 직원 3명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년퇴임한 직원은 한남희 처장(前 총무처장), 박종찬 부장(前 체육부장/학생지원실장), 이석현 실장(前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이다. 퇴임 직원은 모두 전주대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오며 행정체제를 개선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한남희 전 총무처장은 1988년 입사에 32년 동안 비서실장, 총무지원실장, 산학연구실장, 기획예산실장을 역임했고, 박종찬 전 체육부장 겸 학생지원실장도 1988년 입사에 생애개발지원실장, 대외협력홍보실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석현 전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은 1982년 입사에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장, 선교지원실장, 교양학부 행정지원실장을 지내오며 학교 발전을 위해 38년을 헌신했다.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정년 퇴임식에는 이호인 총장과 김갑룡 교육부총장, 류두현 대외부총장을 비롯해 동료 교수 후배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호인 총장은 정년퇴임하는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장도 함께 수여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수시 면접, 비대면으로 진행"

수험생들 감염병 예방 차원... 전형 변화 최소화 검토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험생들의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수시모집 면접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면접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업로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9월 23일 이전에 수험생의 응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면접고사 방식을 확정 및 준비해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형의 변화를 최소화해 수험생

들의 안정적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비대면 면접을 결정했다"며 "9월 초에는 캠퍼스 체험 게임,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이며, 전주대 입학홈페이지(iphak.ji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